

다산포럼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당 14대 황제 문종 때의 재상 서원어(舒元興, 791~835)는 '모란부' (牡丹賦)라는 글에서 "꽃의 가장 빨간색은 모란으로 대표되었네." (英之甚紅鍾於牡丹) 하고 했다. 동시대의 시인 방간(方干, 809-888)도 "나날 꽃은 가볍게 연지 바른 얼굴/ 떨어지지 않은 질계 분 바른 뺨"이라고 노래했다. 모란은 비범한 향기와 화려한 색깔로 인해 국색천황(國色天香), 화왕(花王), 부귀화(富貴花)로 불려온 꽃이다.

그 모란이 올해에도 또 피었다가 졌다. 모란은 4월 20일 곡우 즈음에 핀다고 곡우화(穀雨花)라고도 하는데, 점점 개화가 빨라져 올해 그 무렵엔 오히려 지고 있었다. 모란꽃은 화려하고 풍성하지만 피어서 질 때가 지 20여 일에 불과해 오래 볼 수 없다. 그래서 김영량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에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한 걸까. 모란에 미친 당나라 사람들은 꽃이 피면 "만 마리 말과 천 대의 수레로 모란을 보러 간다"(萬馬千車看牡丹)고 했는데, 열광이 컸던 만큼 꽃 진 뒤의 아쉬움과 허탈도 컸을 것이다.

모란은 또 피고 지고

봄이 되면 꽃을 반기는 사람들이 자기만 발견하고 알아낸 것처럼 꽃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거나 SNS에 올린다. 특히 나이는 사람들이 더 그러다. "꽃을 죽도록 사랑해서가 아니라 꽃 지면 늙음이 다가오는 게 두려울 뿐"(不是愛花惜嫩死 只恐花盡老相催)이라거나 "나날이 늙어가니 봄을 몇 번이나 맞을까?"(漸老逢春能幾回) 하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둘 다 두보의 시구이다), 그래서 나도 비에 젖은 마당의 모란꽃을 사진 찍어 남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들이나 나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낙화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만 남에게 이끌려 꽃을 찬탄하는 게 귀찮고 성가신 일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누가 10여 장씩 사진을 보내오면 이내 지워 버리거나 "다만 한 가지 걱정은 꽃이 (당신 같은) 노인들 위해서 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但愁花有語 不爲老人開)이라는 유우석(劉錫鏞)의 시를 보내는 심술을 부리기도 했다. 최근엔 "늙은이는 머리 위에 꽃 꽃고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꽃은 응당 늙은이 머리에 있기 부끄러우려."(人老簪花不自羞 花應羞上老人頭)라는 소동파(蘇東坡)의 시를 알게 돼 써먹으려고 버르는 중이다.

모란이 지고 나면 작약이 핀다. 비스해 보이는 두 꽃은 한결같이 아름답고 고와서 "얕으면 모란, 서면 작약", 이리 봐도 아름답고 저리 봐도 아름답다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모란은 나무, 작약은 풀인 게 다른 점인데, 겨울이 되면 작약은 땅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땅속에 숨어 봄을 기다린다.

여러 가지 꽃이 봄을 맞아 차례로 피어나는 걸 춘서(春序)라고 한다. 소환(小寒)에서부터 곡우까지 스물네 번 꽃소식을 전하는 꽃바람이 이십사변화신평(二十四番花信風)이다. 이 120일 동안 다섯마다 차례로 스물네 번의 서로 다른 꽃소식을 전해 주는 바람이 불고, 그에 맞춰 꽃이 차례로 핀다. 매화꽃이 가장 먼저 피고 모란꽃이 가장 늦게 핀다.

그러나 이 봄의 질서, 춘서는 이미 문란해진 지 오래다. 여러 꽃이 동시에 피어난다. 벚꽃도 일찍 피더니 4월 초에 벌써 지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2월에 벚꽃이 필 거라는 기상 예측도 틀린다.

다만 작약은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모란이 이슬기를 기다린 다음 채 차례에 맞춰 꽃잎을 연다. 그렇게 믿고 싶다. 중국 송나라 때의 박물사전 '비아(埤雅)'에 "모란은 꽃 중의 왕이요, 작약은 꽃 중의 정승이다."라고 기록돼 있다고 한다. 즉 화왕과 화상(花相)이다. 그런 다소 낯선 작약의 자세를 기리고 싶다. 모란이 한 일을 작약이 이어서 하는 이런 되풀이하는 내년에도 거듭될 것이다.

그러니 꽃이 지는 걸 아쉬워하고, "모두 다 거저말이라며 봄은 달아나 버렸다."(일본 하이쿠 시인 타네다 산토카)고 탄식할 것도 없다. "봄날은 간다"는 말은 "봄날은 온다"는 말이다.

누가 지은 건지 모르지만 이런 5언시가 있다. "세상에서 하고 하는 일이란/ 해도 해도 다 하지 못한다/ 하고 하고가 사람이 떠난 뒤에는/ 오는 사람이 다시 하리라."(世上爲事爲爲不盡爲 爲爲人去後來者復爲爲)

社說

'수산 전남' 위협하는 오염수...정부, 바리만 볼 텐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남도와 어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면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1030m 깊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다고 교도통신이 잇그제 보도했다. 오염수는 이 터널을 거쳐 원전 앞 바다로 방류된다.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를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른바 7월부터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광주·전남 농민회와 어민회, 시민사회, 종교계 등 250여 개 단체는 지난 27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광주·전남행동'을 결성, "일본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도 "일본 정부가 자국민뿐 아니라 인접국과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방류할 계획이라며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화 처리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삼중수소 등은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할 경우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59%를 생산하는 전남 수산업은 자칫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만 치중하며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한 대응에는 미온적이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울 뿐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침묵과 방관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이다.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법 위반 행위이니 만큼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가 주도하는 5·18 행사 기대 크다

올해 제43주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이하 5월 행사위)는 올해 추모·계승 비릇해 모두 130여 개 5·18 기념행사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잇그제 밝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체 행사 가운데 최소 30여 개가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광주 지역 교사와 초교 5·6학년, 중고교생 등 1000여 명이 5월 사적지를 돌아보는 '선생님과 함께 걷는 오월길'을 비롯해 '오월 인권길 걷기' '오월의 봄소풍' 등 청소년 대상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미션 주먹밥 만들기, 스케치북 도크, 퍼포먼스 공연 등의 콘텐츠로 구성된 '청소년 5·18 뮤직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시민 공모 사업 또한 27개 중 18개가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청년을 주축으로 진행

된다. 광주·전남 대학생 품물 동아리 '올림'은 전남대에서 품물 공연을 열고, 광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오는 6월 30일까지 5·18사적지를 탐방한 뒤 음악회를 여는 '5·18 청소년 민주 인권 여행' 사업을 진행한다.

5월 행사위가 미래 세대에게 5·18 기념행사 문호를 대폭 개방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기성세대가 주도한 5월 행사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청년들의 시선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며 미래를 기약하고 있어서다. 광주의 5·18, 과거의 5·18에서 세계의 5·18, 미래의 5·18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미래 세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들이 5월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5·18은 단순 기념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와 광주시, 5월 단체는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5월 행사 참여 기회를 넓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월의 전국화 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기 고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다녀와서

격일 것 같았다. 아직은 겨울 풀빛이 스산한 언덕 아래로 호수처럼 물이 차 있었다.

정문 왼편으로 각양각색의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었다. 꽃이 만발한 거대한 벌판이었다. 무스카리, 튜립, 에리시엄, 베베나 등 처음 보는 꽃들이 총총히 심겨 있었다. 꽃밭 가에 부스를 설치해 오밀조밀한 실내 정원을 꾸며 놓았다. 화분과 탁자, 작은 나무와 책장의 조화가 다양하고 다채로웠다. 언뜻 책장 안에 책 대신 포토주를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발견은 세계 정원의 축소판이 조성된 곳으로 향했다. 아기가기한 일본 정원, 고풍스러운 한국 정원, 멕시코 정원을 지나 네덜란드 정원이 있는 곳에는 커다란 풍차 모형이 이국적인 풍경으로 서 있었다. 가는 도중에 메타세쿼이아가 죽 뻗어 있는 길을 만났다. 나무도 엄청나게 컸다.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을 옮겨 놓았나 싶었다.

"누구에게 자랑해도 좋을 환상적인 곳이야!"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생긴 지 10년이 되었다. 꽃과 식물 그리고 나무들이 십 년 사이에 오래된 토박이처럼 터를 잡았다. 정원 중간중간에 특색 있고 오래된 나무들과 꽃들이 어울려 정원을 고풍스럽게 만들었다. 느릅나무과의 푸조나무는 이름처럼 생소했고 오래된 모과나무의 굵은 몸통 줄기는 오징어 나타날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기이했다. 소솔 속 주인공이 서 있는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갔다. 하얀 꽃잎을 흩날리는 돌베나무도 운치를 더했다. 봄의 향연이 펼쳐지는 정원에는 멀리 순천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랑거렸다. 꽃이 진 폭력 나뭇

가지에 맺비둘기 한 마리가 햇살을 즐기며 즐고 있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동선 독립을 걸었다. 죽 늘어선 빛나무에서 벗음이 눈처럼 날렸다. 꽃비를 따라 독립을 죽 걸어가면 포구가 나오고 거기 김승욱의 소설 '무진기행'에서 주인공과 여자 음악선생이 하룻밤 머물렀던 바닷가 옛집에 닿을 것 같았다. 안개가 무성했던 순천을 배경으로 우리 문학사에 지워지지 않을 '무진기행' 현상이 벚꽃이 휘날리는 독립을 따라 가면 환상처럼 펼쳐질 것이다. 그 사이에도 벚꽃은 난분분히 날리고 있었다.

일행 중 이 지역을 잘 아는 부부의 권유로 점심을 먹으러 구례로 차를 몰았다. 남녘은 언덕과 밭 그리고 산마다 온통 꽃 천지다. 꽃길을 따라 강이 차와 함께 달려왔다. 사월의 섬진강을 등백 담은 소가리탕은 모두의 입맛에 딱 들어맞았다. 음식의 향기가 입안에서 계속해서 터지는 듯했다. 다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계속 점심 얘기를 했다. 흥취에 겨워 아내의 친구가 김용택 시인의 '그 여자네 집'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가을이면 ... 은행잎이 ... 물드는 집 ... 봄이면 살구꽃이 ... 날리는 집" 띄엄띄엄 시구가 갯가에 자장자장 흔들린다. 차창 밖에는 사월의 섬진강이 댓잎처럼 푸르다. 하늘은 강 빛을 담은 채 길게 펼쳐져 있다. 이제 주룩주룩 매우(梅雨)가 내리면 매실이 오동동하니 살이 오르고, 바다에서 부화한 참깨가 물길을 따라 영급 영급 기어오르는 풍요의 계절이 찾아오리라.

이번 여행은 인생의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축복의 하루였다.



이중섭
소설가

이번 여행은 순천에 가 보는 것이 어떠냐고 아내가 물었을 때 섣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고향을 오갈 때마다 '순천만습지'에 자주 들렀고 젊은 날에 한 삼 년 직장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새로운 느낌이 나지 않았다. 아내 친구들과 부부 동반이라 딱히 거절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나에게 순천은 김승욱의 소설 '무진기행'에 묘사된 한 장면으로 남아 있었다.

"읍의 포장된 광장도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햇볕만이 눈부시게 그 광장 위에서 끓고 있었고 그 눈부신 햇볕 속에서, 정적 속에서 개 두 마리가 혀를 빼물고 교미를 하고 있었다."

무로함. 왠지 순천은 내 마음속에 지루함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봄날의 '순천만 국가정원'이 그토록 화사하고 청량할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문을 들어서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호수에 떠 있는 언덕 섬이었다. 보자마자 와, 하고 탄성이 튀어나왔다. 거대하게 솟은 것이 제주 오름이나 고대의 고분처럼 보였다. 세 군데의 언덕마다 빙 둘러 길이나 있었고 정상에는 순천만 쪽에서 잡조름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에 방패연이나 가오리연을 날리면 아주 제

기 고

잊혀진 이순신 발자취, 진화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당시 수군 부대와 인접한 연해 지역 백성이 수군의 징집 대상이었다는 점 등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과 호남 지역은 깊은 인연이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전남 연안 지역을 비롯한 호남 지역 곳곳에서 이순신에 얽힌 실화나 설화 등이 자주 오르내리는 것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순신과 호남 지역의 역사적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호남 지역의 지역민, 유관단체 및 지자체 지도자들에게 관내 이충무공의 잊혀진 행적에 대한 현황을 조심히 소개하고 있다.

첫째, 정유재란 발발 전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극소수의 인원만을 대동하고 한산도에서 여수로 이동해 일본군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 전라도 내륙 깊숙한 곳까지 40여 일을 직접 순회하며 민심을 살피고 전비태세 강화를 했던 생생한 행적은 아직도 우리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유재란 발발 3개월 전 전라도 내륙 전비 태세 검열 순회로는 여수, 순천, 낙안, 녹도, 장흥, 강진, 진도, 해남, 영암, 나주, 고막원, 무안, 함평, 영광, 고창, 장성, 광주, 화순, 보성, 순천, 여수 등 이순신의 유비무환한 정신을 상징하는 구국의 육로였다. 아직도 이 길목 어느 곳에도 이충무공의 흔적을 살필 만한 표지석 하나 없는 게 현실이다.

둘째, 이충무공의 생애 행적 중 백의종군 육로의 여정 못지않게 처절했던 해상 행적을 짚는다면 크게 두

행로가 있다. 우선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소수의 패잔병을 이끌며 전략적 후퇴를 했던 장흥 회령포에서부터 결사항전의 명량해전 격전지 해남 우수영까지의 구국의 항로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명량해전 승리 직후 왜군의 추격을 피해 서남해의 오지의 섬과 바다를 전전하면서 바다를 떠도는 피란민들을 위로하고 오직 조선 수군의 재건을 꿈꾸며 눈물과 한숨으로 보냈던 신안군 당사도-어의도-안좌도에서 목포 고히도까지의 구국의 해상 항로다. 이 항로 역시 접근하기 좋은 육지의 이충무공 발자취 등에는 표지석도 세워지고 나름대로 관심의 흔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호남 내륙이나 오지의 섬 발자취에는 시쳇말로 말뚝 하나 세워진 곳이 없다.

최근 일본의 노골적이고 표리부동한 역사 왜곡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진화하면서 국민들의 집단 속살이 드러나고 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는 말은 호남 지역과 인연이 있는 대표적인 이충무공의 어록이다. 각종 기념행사나 선거철에 이충무공의 어록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정치 지도자나 주요 인사들의 모습보다는 오지의 이충무공 발자취에 표지석 하나라도 세우는 지도자, 숭고한 이순신의 정신을 호남의 정의로운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도자의 행동하는 자세가 반성할 줄 모르고 진화하는 오늘날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無等鼓

자전거 도둑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난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강그리 무시당한 안토니오의 무너진 등이 걸릴 수 없어 콧등이 시큰해졌고, 그보다는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목격해야 하는, 그럼으로써 평생 씻을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어린 아들 브루노 때문에 나는 허를 깨물었다."

소설가김소진(1963-1997)의 '자전거 도둑'(1995년 발표)은 동명의 영화를 모티브로 쓰인 단편소설이다. 소설 속 '나' 역시 자전거를 도둑맞지만 원상인 영화와는 시대와 장소, 상황이 전혀 다르다.

영화 '자전거 도둑'(감독 비토리오 데 시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이탈리아 로마를 무대로 한다. 생계를 위해 도난당한 자전거를 찾으려 시내 구석구석을 에타게 돌아다니는 아버지(안토니오)와 아들(브루노)을 통해 전쟁 후의 궁핍한 생활상이 가감 없이 스크린에 그려진 작품이다. 특히 영화는 스튜디오가 아닌 로마 거리에서 촬영됐다. 인공 조명 대신 자연광을 활용했다. 직업 배우가 아닌 철

공소 노동자와 신문 배달 소년이 아버지와 아들 역을 맡았다. 기존 영화 문법과 다른 이러한 연출 방식은 이탈리아 '네오(Neo)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영화사조(思潮)를 형성했다. 또한 구르자와 아카리(일본)와 사티야지트 레이(인도), 봉준호, 김소진 등 많은 영화감독과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영화 '자전거 도둑'이 75년 만에 정식 개봉됐다. 디지털 리마스터링 과정을 거쳐 개봉된 흑백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보니 예전 비디오향은 다른 울림을 줬다. 그림책을 공부하는 중년 여성들과 청년 세대도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 연령층도 다양했다.

좋은 영화 한 편은 또 다른 창작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명작 영화 속에 시대상과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우리시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뒷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 낸 새로운 '자전거 도둑'을 기대한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오는 5-7일 '가치봄 영화제'를 열어 '자전거 도둑'과 '내친구'의 집을 어디인가'(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등 영화 세 편을 상영한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고광섭
전 국립목포해양대 교수
이순신 칼럼니스트

올해도 이충무공 탄신 478주년인 지난 4월 28일을 전후하여 호남 지역 곳곳에서 탄신일 행사가 거행됐다. 매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에 전국 각지의 기관 또는 유관 단체 등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목적은 후세들이 이충무공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이충무공이 남긴 교훈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호남 지역을 빼고 이순신의 정신과 발자취를 논하는 것은 이순신 역사의 반쪽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은 대체로 일치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역사적 근거가 있다. 첫째는 임진왜란 초기 경상 해역의 수군이 무너지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주요 연안 지역과 항포구는 왜군들의 점령지가 많아 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역이 조선 수군의 병력이나 군수물자의 주 공급처였다는 점, 둘째는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함대의 주력 부대가 해남에 본부를 둔 전라 우수군과 여수에 본부를 둔 전라 좌수군이었다는 점, 셋째는 임진왜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